

“10대 맹활약… 파리 올림픽 기대”



“굿바이 도쿄” 8일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폐회식에서 폐막을 알리는 불꽃이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폐막, 한국 금6·은4·동10 최종 16위 양궁·펜싱·체조 ‘효자’ … 격투 종목은 새 돌파구 찾아야



대한민국 선수단이 8일 폐막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냈다.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무산됐다. 최종 순위는 16위. 한국은 양궁에서 금메달 4개, 펜싱과 체조에서 1개씩을 획득했다.

〈관련 기사 18, 19면〉
신궁의 나라를 대표하는 양궁 대표팀은 안산(20·광주여대)의 활약으로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쓸었다. 펜싱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한 2012 런던 대회 이래 최고의 성과를 냈다.

체조 역시 런던 대회 이래 9년 만에 금메달을 추가하고 동메달 1개를 획득해 한국의 메달 행진에 힘을 보탰다.

태권도와 레슬링, 유도 등 격투 종목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았다. 종주국을 자부하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2000년 시드니

대회 이래 21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해 목표 추진에 큰 타격을 가했다. 한국 유도는 2회 연속 금메달을 못 따내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래 45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남겼다.

몬트리올을 대회에서 대한민국에 올림픽 첫 금메달을 선사한 이래 전통의 효자 종목으로 군림해 온 레슬링은 1972년 뮌헨 대회 이래 49년 만에 처음으로 메달을 못 건졌다.

금메달 수로만 보면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를 따낸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래 37년 만에 가장 적다.

하지만, 황선우(18·수영), 김제덕(17·양궁), 여서정(19)·류성현(19·이상 체조), 신유빈(17·탁구), 안세영(19·삼성생명) 등 10대 스타들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박태환(수영), 장미란(역도) 등 간판스타들이 은퇴한 공백을 메울 미래동력으로 손색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벌써부터 3년 뒤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안산의

기량도 파리올림픽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근대5종 종목의 새 역사를 쓴 전웅태(26·광주시청)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와 함께 레이스를 펼친 정진화(32)의 나이를 감안하면 파리올림픽에서 충분히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 또 기초 종목 육상 높이뛰기에서 4위에 올라 기적을 일군 우상혁(25)은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 체육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이기를 대한체육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거둔 성적을 두고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선수단이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며 “세대교체 과정 중 새 얼굴을 발굴한 것은 소득”이라고 평했다. 그는 “황선우, 신재환, 신유빈(탁구), 안산·김제덕(이상 양궁) 등 어린 선수들이 스타로 탄생했다. IOC 위원들도 이들의 출현과 성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앞으로 한국 선수단의 얼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이 끝난 뒤 종목 단체와 협의를 거쳐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메달 전략 종목 재분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통’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번 대회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였으며 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종목을 메달 육성 종목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세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유흥시설 밤 10시 후 영업 금지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도권 등 타 지역발 코로나 19 연쇄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층을 매개로 한 가족·지인간 감염이 확산한 점에 주목하고, 직계가족 모임도 기존 8명에서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모든 행사,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3단계와 동일하게 50인 미만, 사적모임도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그동안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선 8명까지 허용했으나,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직계가족 모임을 축소할 것은 최근 젊은층 감염 이후 가족간 감염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인 264명(49%)이 20대였으며, 30대 95명, 40대 87명, 10대 67명, 60대 이상 38명, 10대 미만 22명 순으로 집계됐다. 젊은층의 감염이 늘면서 가족간 감염도 210명(38.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으로 고령층 감염이 크게 줄었으나,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젊은층 위주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학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젊은층의 활동량과 범위가 넓어진 점도 감염세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광주에선 이 기간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유흥시설,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남에서도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가족과 지인을 만나려고 전남을 찾은 외지인에 의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을 맡고 있는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는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내체육시설,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20~30대 젊은층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미 주중으로 자리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타 지역 여행과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양궁 3관왕 안산 광주시 홍보대사 된다

11일 광주선수단 환영 행사

2025세계양궁선수권 유치 활동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3관왕 안산(사진·20·광주여대)이 고향 광주의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열리는 올림픽 광주선수단 환영행사에 앞서 안산을 광주시(빛고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조만간 대한양궁협회와 공동으로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안산과 2012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를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두 선수는 광주 여대 선·후배 사이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와 광주 홍보활동 등을 하게 된다. 광주시 홍보대사로 안산인 김홍민, 성악가 조수미, 영화배우 안성기, 요리연구가 이해정 등 34명이 활동했다. 광주시는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2025년 세계양

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대한양궁협회가 협의해 유치신청서를 세계양궁연맹에 제출하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구례 주민 “섬진강 수해 추석 전 배상하라” ▶2면

전두환, 오늘 ‘5·18 광주 법정’에 선다 ▶6면

한국의 산사를 가다 - 순천 선암사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 오실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VITAL 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녹차추출물, 베타틴 C, 베타틴 D

건강기능식품 / 45g (1500mg x 30)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바이탈뷰티 (주)
158-8200-1100

손담비